

지금은 시대 사명자를
확실히 증거해야 할 때로다.
시대 사명자를 증거하라

작성일 : 2012. 04. 25 (수)
작성자 : 정 형호

(새벽 기도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성자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지금은 시대 사명자를 증거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였고, 더욱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 성자 주님 말씀 *

시간이 없는 이 때,
시대의 사명자를 증거하는 것이
나 성자를 증거하는 것이요,
지금은 시대의 사명자를 강하게 증거할 때로다.
먼저는 욕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라 했다.
먼저 만날 자를 만나야
구원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법칙이다.

나는 이미 시대 사명자 에게 강림하여 역사하니
시대의 사명자로 말미암아
그와 사랑 일체 된 자는
나 성자와도 사랑 일체 되어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있으리요.
시대의 사명자로 하여금
퇴비하여 열매를 가꾸게 하나니
마지막 따고 수확하는 것만이 남았다.

익은 열매를 따고, 수확하는 의미는
이 시대가 재림 주관권 시대임을 말하는 것이며,
이제 곧, 수확한 열매를 거두어 가는 것이 남았으니
이는 나 성자의 재림이다.
시대의 사명자로 하여금
열매를 수확하는 때까지 왔으니
이제 나 성자가 거두어 가기 위해
직접 나타남이 가까운 때라.

아직까지 퇴비를 뿌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들이 있으니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없애리라
한 말이 이루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나무를 살리기 위한 때로다.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심.)

그러하기에 시간이 없는 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만 선택하여
퇴비하고, 가꾸어 열매 맺게 하리니
이는 시대 사명자로 하여금
그를 통한 깊은 말씀 속에 역사하는
나 성자 예수에 대해 깊이 알아야 함이요,
그러하기에 시대 사명자를 통한
증거가 중요하리로다.
결국 시대 사명자로 인해 살 수 있으니,
시대 사명자에 대해
알려 주고 증거하는 것이 크고도 크다.
역사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명자로 인함이다.
이를 꼭 깨달아라.

지금의 때까지 수많은 자들이 열매 맺지 못함은
인간의 책임분담 속에, 증거해야 할 자들이
시대 사명자를 확실히 증거하지 못함이니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
미련도 후회도 없이 총력을 기울여,
시대 사명자를 통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수확의 결실을 맺어야 할때다.

그러하기에 먼저 시대 사명자에 대해
정확히 배우고 깨달아야 하도다.
섭리의 핵과 진리의 핵은 시대의 사명자다.

시대의 사명자가 빠지는 증거와 말씀은
뼈대 없는 인간, 뇌가 없는 인간과 같다.
인간의 육신에 뼈대가 없다면 또한 뇌가 없다면
인간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 존재할 수 없다.
뼈대가 너무 중요하다.
골격과 뼈대를 바탕으로
인간은 육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뇌가 너무 중요하다.

네가 인간의 모든 기능을 반응하며 컨트롤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섭리사의 가장 근본된 핵을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시대의 사명자를 따르면서도
그에 대해 제대로 모르거나, 그를 통해 역사하는
나 성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정으로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하면, 힘이 없으니
역사의 뜻을 어찌 이루리오.
오직 알고 깨달은 자만이
역사의 뜻을 실현하여
모든 축복을 감당하리라.

축복은 허락된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있나니
그 소망의 깊은 뜻에는 깊은 사랑이 있도다.
그러니 깨닫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기도하여라.
섭리사 모든 자들은 나 성자의 재림 주관권 시대에
살고 있음을 확실히 깨닫고,
시대 사명자에 대해 더욱 알기를 간구하며
그를 통해 역사하는 나 성자를 증거해야 하도다.

마지막 역사 앞에 증거해야 할 자를
증거하지 않음으로 복이 화가 되고,
증거해야 할 자를 증거함으로 화가 복이 되도다.
나 성자를 증거하기 위한 발판은
시대의 사명자요,
시대의 사명자의 발판은
따르는 자들이니
삼위가 일체하여 역사하는 가운데
나 성자 예수와 시대 사명자와 너희가 일체 되어
마지막 역사의 뜻을 실현해야 하리로다.

핍박과 악평을 두려워 말며,
위축받지 말고,
시대의 사명자를 땀땀이 담대히
사랑하며 가야 하리로다.
창조역사 이래로 그토록 소원하던 바
창조목적의 뜻을 실현할 자가 탄생하였는데
기뻐 뛰며,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사위는 못할지언정
어찌 그를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리오.

성삼위는 그가 태어나 역사의 뜻을 이루어
너무 좋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

해 덩실덩실 춤을 추었도다.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며 오직 담대하라.

시대의 사명자를 증거함으로
돌을 맞을 자도 없고, 침을 맞을 자도 없으니,
먼저는 네가 시대 사명자를 증거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떨지 너무 의식하지 말고
진실과 진심 속에, 제대로 담대히 전하라.
그를 증거하기 위해 나 성자 예수에게 기도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기에
더욱 함께 도와 역사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듣고 좋아 팔짝 팔짝 뛰며
시대의 사명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할 것이며, 시대의 역사를 따르리라.
역사의 인봉이 풀어짐은
마지막 때가 되어
그 인봉이 널리 전파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
택하여 데려갈 자들이 있음을 말하며,
그들을 데려오라 함이다.

세계 각 나라는 들을지어다.
시대의 판국이 기울어져
시대의 사명자를 악평하고 핍박하며,
사탄은 그를 영원히 가두길 힘쓰지만,
정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풀리리오.
사탄이 갇히게 되리라.
시대의 보낸 자는 갇혀 있는 것들이 모두 풀려,
전에도 후에도 없던 역사의 뜻의 실현을
더욱 힘 있고, 권세 있게 이어 나갈 것이다.
또한 더욱 차원을 높여 성삼위의 뜻을 이루리라.

너희는 꿈꾸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역사들이 선생의 앞날 가운데 예정되어 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현재는
미래의 전초 과정이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것이다.
현재로 인해 미래의 예정되어 있는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선생으로 하여금 어떤 역사들이 펼쳐지는지
끝까지 함께함으로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누리고 맛보길 바란다.
이 모든 것 선생과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꼭 깨닫고 명심하라.

그러하니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어서 빨리 시대 사명자를 통한
나 성자의 뜻을 널리 널리 전하며,
마지막으로 거두어야 할 자들을 거두자.
시대의 사명자에 희생으로 살게 된,
시대를 따르는 자들의 책임이 크도다.

시대의 사명자가 희생함으로 살리었으니
따르는 자들은 정신도 마음도 영도 살아나
자신도 확실히 수확하여 결실하고,
그를 증거함으로 그의 몸이 되어
함께 마지막 수확에 충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니
철저한 기도와 말씀 속에
시대 사명자를 깨닫고, 증거하자.

시대 사명자를 증거하는 핵은
부흥강사를 통해 가르치고 있으니
이 또한, 시대 앞에 인봉이 풀어짐이요,
시대 사명자를 증거하는 열쇠로다.
시대의 사명자를 증거하는 표본이로다.
그 표본을 통해 역사하는
나 성자의 역사함을 느끼며 제대로 알고 배워
천 년 역사의 기틀을 만들지어다.

지금은 나 성자가 강림한 시대의 사명자로 하여금
살아난 자들이 은혜와 성령을 받고,
시대 사명자를 증거함의 초석을 다지는 마지막 때요,
나 성자의 재림 후, 그 다져진 초석 속에
이 역사 더욱 찬란히 빛나며 지속되리라.

그 뜻을 아는 시대의 사명자는
역사의 뜻을 실현코자 천 년 역사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나 성자로 하여금 말씀을 다지고 다져 보관하고 기
록하며 양식을 다지는 기간을 보내고 있다.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으니
시대의 사명자는 오늘도 설 잠을 자며
목숨에 목숨을 걸고 자신을 내어 준 바 되어
나 성자와 혼연 일체 되어
사랑으로 뜻을 이루어 가고 있으니
그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그의 조력자가 되어

그를 돕기에 힘써야 할 것이요.,
이것이 나 성자의 재림을 맞는
열매 중의 하나로다.

너희가 열매 맺어지기까지
돕고 도우는 자를 위해 충성을 다할지어다.
충성을 다해 나의 말을 행하지 않는 자 위에
나 성자는 나타날 수 없으며,
그에게는 뜻이 실현되지 않으며
나 성자의 재림도 맞을 수 없으리로다.

나 성자는 인격의 성자요, 사랑의 성자요,
공훈과 자비의 성자이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잊지 말지어다.
열매 맺는 나무는 확실히 수확하여 거두어 가리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복도 화도 자기가 하는 만큼이로다.

너희에게 시대 사명자를
증거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그 뜻이 실현되길 축원한다.
시대의 사명자를 전에도 후에도 없이
증거해야 함이 마땅하도다.

재림의 정점의 역사 가운데
지금이 시대 사명자를 증거함이
너무나 중요한 때임을 반드시 깨닫고,
섭리사 시대 사명자에 대해 깊이 깨닫고
제대로 배워 증거의 역사가
날마다 차원을 높여 이루어지길 바란다.

깨달은 자 위에 증거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시대의 사명자를 증거하지 않음으로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길 당부한다.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를 통한 역사 속에
나사렛 예수의 육신이 죽고,
이 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시대를 따른 제자들이
뜨거운 성령으로 증거의 역사를 이루어 간 것처럼
시대 사명자를 통한 나 성자의 역사를
강하게 증거해야 될 때가 왔으니
바로 이때임을 반드시 알고

강권적으로 나 성자가 역사하는 뜻 속에
시대 사명자를 모두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
사랑한다.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 역사하는 성자 주 예수.